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2년 11월 18일(금)

---(윤력 10월 25일)---

Пятница

18 ноября 2022г.

№ 45 (12012)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11월 20일은 세계 어린이 날이다.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전투 지역으로 보낼 드론이 사할린에서 조만간 출고된다

이 과제를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가 주 정부에게 제의했다.

"주지사는 사할린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제 무인 항공기 군수품을 공급하도록 지시했다. 현재 전문가들이 비행장에서 첫 모형을 군 시험장에서 시험하고 있다."고 사할린주 부총재인 왜체슬라브 알렌코브가 언급했다.

앞서 사할린에 무인 항공기 조정 예비역과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을 위한 훈련소를 건설했다. 특수군사작전 참전을 위해 징집된 병사들의 훈련이 우스페놉스키 군 훈련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드론 이용은 적을 발견하고, 은폐된 적지와, 군무기 위치를 찾고, 올바른 전투 및 방어 전술을 선택하도록 돕고 있다.

군부대에서 드론 조정 훈련은 무인 항공기 제작과 개발에 직접적 관계를 갖고 있는 숙련된 교관들이 지도하고 있고, 지역 디지털 및 공학 개발의 대표자들도 필요한 방법적 도움

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은 몇 단계로 진행되는데 병사들의 첫 교육은 드론의 설계, 드론 조정과 수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등을 가르치고 있다. 이후 병사들은 시험 조정을 연습하고, 이후 교육을 수료한 후 무인 항공기 조정 훈련을 증명하는 국가인증서를 받게 된다. 훈련 중에 사용한 드론들은 장비들이 전투 지역으로 가지고 가게 된다.

알레리 리마렌코는 사할린의 군부대와 군 훈련소를 몇 차례 방문하여 구역의 대표들 앞에서 유사한 과제를 지시했다. 지역 수장의 지시에 따라 동원된 사할린의 병사들의 임시 숙소 건설은 건설사들이 맡게 되었는데 숙련된 건설 하청업자들이 며칠에 걸쳐 필요한 작업을 완수했다.

주 정부는 특별한 감독 아래 사할린 동원병들의 보장 문제를 모든 필요한 것들로 뒷받침하고 있다.

사할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병사들을 위한 장비와 기계적 장비들이 갖추어졌다.

사할린주 상공회는 <함께 하는 미래> 자선재단 조성에 모든 관심을 가진 주민들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추가정보는 전화: 8 (4242) 28-23-45, 23-00-05로 알아볼 수 있다.

주지사의 결정에 따라 부분 동원령으로 징집된 사할린의 가정들에게는 일시금으로 30만 루블리를 지급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동원된 병사의 각 가정과 친지들을 찾아다니며 모든 문제들을 수집하고 있다.

개별적으로 취업 문제, 의료 서비스 혜택, 자녀의 교육과 사할린 주민들이 걱정하는 다른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동원병 가정 지원에 따른 문의 전화는 8-800-201-00-99 (1. 번호 추가)이다.

(주정부 제공)

주지사, 일주일간 주택가 수리 및 정비 지시

<1000개 주택가>와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 연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1월20일까지 보수공사들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주 정부회의에서 논의됐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택가 보수공사, 공공구역 정비를 위한 연방 자금이 배정된 만큼 기한 내로 모든 작업을 엄격하게 마무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재정적인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시행하지 않을 시 배정된 자금을 반환토록 하고, 그 어떤 지방자치단체든 주어진 과제를 이행하지 않을 시 감독하는 부시장의 해고를 경고하기까지 했다.

2022년 사할린주에 연방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해 4억1,800만 루블리가 배정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사할린 지역에서는 84개 주택가 보수공사가 계획되어 있었다. 현재 우글레고르스크 지역 샤흐초르스크 구역의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이 작업은 며칠 내로 완료될 전망이다.

올해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에 따라 25개 공공구역의 정비가 이뤄졌고, 작업 시행을 위해 연방예산 7천7백만 루블리를 포함해 4억 7천100만 루블리가 배정되었다.

아직 4개 지자체의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할린 지역에 추가로 78개 주택가의 보수공사 이뤄진 점이 강조된다고 주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단신

사할린의 농산물 작년보다 수확량 증가

사할린주에서 감자를 비롯한 뿌리채소의 수확이 끝난 국영농장 및 채소농장 경영자 가운데 감자의 수확량은 약 4만7천 톤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2천 톤이 증가한 수치다. 이에 수확량 선두에 선 농장들은 '쎄플리츠니', '자레치예'국영농장, '야반가르드-아그로', '유즈노사할린스키'국영농장이다.

노지 채소는 약 2만3천 톤 정도 수확, 이외에도 이들 농장들은 전통적인 보르쉬 재료 채소들(양배추, 당근, 비트)을 비롯해 양파, 무,브로콜리, 콜리라비, 양배추, 애호박과 호박도 재배하고 있다. 올해 이들 평균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48.8톤에 달했다.

가장 수확량이 많은 '쎄플리츠니' 국영농장은 56.5톤, '자레치예'가 51.7톤, '유즈노사할린스키'가 47.9톤이었다. 채소농장 경영자들 중에 예브차예브가 52.2톤, '오스트로브'가 47.8톤을 수확했다.

2022년에는 농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전례없이 39억이라는 국가 지원금이 배정됐다.

일본과 인도 '사할린-1'기획 유지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가 '사할린-1'기획 관련 2개의 행정조치에 서명했다.

이 기획은 10월에 국유화되었던 것을 국내 운영자가 운영하게 되었다.

2개의 법적 조치에는 11월9일(11월 14일 공포)부터 러시아의 '사할린-1' 기획에서 일본의 '사할린 오일 및 가스 개발 (Sakhalin Oil & Gas Development)' 유한책임회사가 지분 30%를, 인도의 'ONGC 비데쉬(Videsh)' 유한책임회사가 20%의 지분을 갖는 것을 승인하고 있다.

인도의ONGC 회사와 일본의 '소데코' 회사는 일찍이 자체 지분을 유지하도록 신청했으나 미국의 엑손 유한회사는 이 기획에서 손을 뗐다.

사할린에 600톤 육계 들어온다

'오스트로브나야' 양계장의 육계 생산 중단과 관련하여 고병원성 조류 독감의 발생으로 인한 종합 방역대책의 시행을 위해 주 농축산부에서 사할린의 경험이 많은 기업가들과 사할린의 가공류 납품업자들과 실무회의를 열었다.

기업가들의 정보에 따르면 공급 상황은 안정적이며, 국내 지역들로부터 거래처들의 식품 배송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도매업자들은 새해와 성탄절 전에 수요의 증가를 고려하여 공급량을 증가시키며 여러 종류의 가공류 식품들을 확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600톤 이상의 육계와 추가 달걀이 공급 중이라고 농축산부 인나 파블렌코 장관이 전했다.

새고려신문

2023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3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06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

(편집부)

사할린의 동원병들을 위한 겨울 군복 사할린에 전달돼

〈함께 하는 미래〉지역 자선재단과 사할린주 정부가 부분 동원령으로 징집된 병사들을 위해 대량의 동계 군복류 구매를 조성했다. 군복 세트에는 극한의 추위에 견딜 수 있는 겉옷이 포함돼 있다. 겨울철 군복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기업 대표들이 전달할 수백만 루블리가 소요됐다.

매주 사할린으로 겨울 잠바와 바지가 보급되고 있다. 군대의 요청으로 옷들을 선별하여, 최대 8시간 내 내 내리는 비를 견딜 수 있는 의복을 선택했다. 안감은 은박으로 되어 있어 혁신적인 단열재로 체온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장병들을 위해 모두 몇 백 벌의 겨울 군복을 확보했다. 사할린으로 카키색의 털모자도 보급됐다

"〈함께 하는 미래〉자선재단의 참여자들과 사할린 지역의 기업가들, 사할린 주정부에 감사할 표명하고 싶다. 동부군관구 군부대 복무자들이 여러분의 배려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보급된 의복은 따뜻하고 편하다. 여러분의 지원과 신뢰에 감사를 표한다."고 극동 동부군관구 군부대 사령관 대령 드미트리 로즈코브 대령이 말했다.

2022 KBS 한민족 체험수기 대상작

눈물의 섬, 사할린

김경순

제 이름은 김경순입니다.

저는 1949년 사할린에서 태어났어요. 저의 부모님의 고향은 한국 충북 청주시입니다.

옛날에 제2차 세계대전 때 저의 부모님은 사할린에 징용으로 끌려오셨어요. 그때 부모님은 어린 아들을 한국에 놔두고 오게 된 상황이었습니 다. 부모님은 한 2년 -3년이 지나면 고향으로 돌아갈 거란 생각으로 사할린에서 사셨대요. 그때 그 이별이 50년이 넘을 줄은 상상도 못하셨대요.

그리고 1945년 전쟁이 끝나자, 길은 영영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은 고향을 그토록 애타게 그리워하셨어요. 더군다나 어린 아들을 한국에 놔두고 와서 더더욱 애타게 그리워하셨지요.

제 기억으로는 어머니께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하셨어요. 그건 한국에 두고 온 어린 아들이 눈에 사무쳤으니까요...

이렇게 저의 큰오빠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남았고, 우리 5남매는 사할린에서 태어나 사할린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들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옆에 계셨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어요. 든든하니까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열심히 노

력하시며 우리들이 다칠까, 데일까, 무거울까, 아플까 걱정하시며 늘 병아리처럼 감싸 키우셨어요. 양부모 밑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컸지요. 그런데 큰오빠만 불쌍하게 컸어요. 저의 큰오빠의 이름은 김한경입니다.

이 일은 나중에 생긴 일입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 2013년 -2015년쯤에 큰오빠가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어린 시절을 아주 고생스럽게, 서럽게, 가난 속에서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이 천덕꾸러기로 슬프게 살았지... 먹을 것이 없어 굶기를 밥먹듯이 했어..." 라고요.

옛날 어머니가 사할린으로 떠나는 뱃전에서 어머니가 " '날 따라가자.'라고 하실 때 나는 할아버지가 무서워 따라간다는 말을 못했어... 뱃전에서 어머니와 헤어졌을 때, 배가 어머니를 태우고 '부---' 고동소리를 내며 떠나가자 갑자기 내 옆에는 아무도 없다는 걸, 무서운 할아버지만 있다는 걸,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혼자라는 걸 느끼고, 배 떠난 부두에서 떠나가는 배를 , 떠나가는 어머니를 보며 하염없이 울었어... 8살 된 어린 내가 통곡하며 목놓아 얼마나 울었는지... 지금도 생생해." 하시며



우셨어요. "그러나 그 이별로 50년이란 세월이 흘러갈 줄은 상상도 못했지. 오래도록 부모님 소식이 없어서 난 부모님이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어. 어머니, 아버지란 그 두 단어를 얼마나 부르고 싶었는지 몰라. 아버지란 말을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어. 한 번도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었어... 아버지는 늘 첫새벽에 일하러 나가시고는 밤이 깊어서야 집으로 돌아오시니까, 항상 내가 자고 있을 때라서 나의 얼굴만 보시고, 그러셨지..." 라고 하시며 큰오빠가 우셨어요. " 6.25 전쟁 때 산으로 피난을 갔

는데 모두가 다 산산이 흩어지고 내 혼자 산에 남아있었어. 비행기가 살아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모조리 총으로 쏘아 죽이니, 나는 죽은 듯이 조용히 누워있었어. 캄캄하게 날이 저물자 비행기들이 다 날아갔어. 다 날아간 뒤에 살살 일어나서 손으로 더듬더듬하니 온 사방이 죽은 시체뿐이었어. 발은 총으로 부상을 입어 잘 걷지도 못했고, 또 무섭기도 했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랐어. 캄캄한 산속을 기어서 기어서 헤매다가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마을로 내려왔지..."

큰오빠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눈물이 마구 솟구쳤어요. 어머니께서 옆에 계셨더라면 고생은 적게 했을 텐데... 큰오빠가 너무 불쌍했어요. 어머니도 너무 불쌍했지요.

어머니는 사할린에서 사시면서 큰아들 생각, 큰아들 걱정을 하루도 안 한 날이 없었어요. 우리 5남매가 있는데도 큰오빠 걱정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며 살겠지... 아마 6.25 전쟁 때 죽었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용한 점쟁이란 점쟁이는 다 찾아다니시면서 혹시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셨지요.

"살아만 있다면 언젠가는 만날 수 있겠지..."라시며 한참이나 생각에 잠기시곤 했어요.

(다음 호에 계속)

이모저모

'옥차브리' 영화관 55주년 기념, 엘다르 라자노브의 영화제 개최

11월 19일(토) 하루 동안 '옥차브리' 영화관의 55주년 기념으로 엘다르 라자노브 감독의 영화 축제가 개최된다. 입장은 무료이다.

오랫동안 시대가 변했음에도 엘다르 라자노브의 영화를 우리가 계속 본다는 것은 그의 작품들이 국내 영화 전성기의 상징이었고, 다양한 세대의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영화제 프로그램의 상영작들은 유니버스 영화 〈완전 진지하게(로빈슨은 어떻게 만들어졌나?)〉(6세 이상 관람), 코미디적 모험 〈러시아에서 이탈리아인들의 신기한 모험 (전체 관람가)〉, 로맨틱 코미디 〈직장 내 연애〉(12세 이상 관람가), 풍자 코미디〈 차고〉(전체 관람가) 등이 있다.

엘다르 라자노브 감독의 작품들에서는 아나톨리 파파노브, 세르게이 필리포브, 안드레이 미로노브, 예브게니 엡스티그네예브, 올렉 바실라슈빌리, 리야 아헤드자와코와, 스웨틀라나 네몰라예와, 안드레이 마그코브, 알리사 프레인들리흐, 알렉세이 부르크코브, 왈렌틴 가프트, 왜체슬라브 네윈니 등등 유명 영화배우들이 연기한 주인공들과 다시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무료 영화 관람권은 biletsakhcom.ru와 극장 매표소에서 배부한다.

"Октябрь" отпразднует 55-летие фестивалем фильмов Эльдара Рязанова

В честь 55-летия киноконцертного зала "Октябрь" весь день 19 ноября в ККЗ "Октябрь"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фестиваль фильмов Эльдара Рязанова. Вход свободный.

Кинокартины Эльдара Рязанова мы продолжаем смотреть, хоть времена давно изменились, — они стали символами эпохи расцвета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кино и любимы зрителями самых разных поколений.

В программу фестиваля включены: киноальманах "Совершенно серьезно" ("Как создавался Робинзон") (6+), приключенческая комедия "Невероятные приключения итальянцев в России" (0+), романтическая комедия "Служебный роман" (12+), сатирическая комедия "Гараж" (0+).

Фестиваль фильмов режиссера Эльдара Рязанова — это отличный повод вновь встретиться с любимыми героями, которых сыграли знаменитые актеры Ана-

толий Папанов, Сергей Филиппов, Андрей Миронов, Евгений Евстигнеев, Олег Басилашвили, Лия Ахеджакова, Светлана Немоляева, Андрей Мягков, Алиса Фрейндлих, Алексей Бурков, Валентин Гафт, Вячеслав Невинный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Бесплатные билеты уже в кассе кинотеатра, а также на biletsakhcom.ru

〈민족어 발표〉 콘퍼런스에 북방 소수민족 원주민 청년들 참가

북방 소수민족 원주민들의 언어로 진행되는 기획들이 사할린에서 발표됐다.

제5회 '로드나야 레치(민족어)' 지역 청소년 및 청년 콘퍼런스 행사에서 11세부터 27세의 청소년과 청년 발표자들이 자신의 연설문을 발표했다.

11월 11일(금)에 행사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린 가운데 사할린주의 참가자들과 함께 처음으로 콘퍼런스에 캄차트카, 하바롭스크, 자바이칼리에 변경과 사하 공화국(아쿠치야)의 대표자들이 참가했다.

콘퍼런스에서 청년들은 19개의 발표문을 낭독했는데 님흐어, 우일타어(오로크어), 에벡크어, 코랴크어를 비롯한 그외 언어들로 발표한 가운데 자신들의 기획에 다채로운 주제들을 다루었다. 예를 들면 하바롭스크 변경 벨키 마을의 아르세니 작소르는 자신의 민족의 역사를 발표했고, 사할린 노글리키 지역의 크리스티나 고르부노와와 오하 지역 네크라소브카 마을의 드미트리 켈만은 님흐족 전통요리의 주요 재료인 물고기를 주제로 한 연설문을 발표했다. 캄차트카 변경의 엘리조보 시의 안토니나 킬리크는 이 지역 어린 아이들이 코랴크어로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와 문제점들을 제기했다.

'로드나야 레치(민족어)' 사할린주 북방 소수민족 원주민의 언어로 진행되는 지역 청소년 및 청년 콘퍼런스는 2018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이 행사는 체호브 책 박물관이 주최하고, '사할린 에너지' 회사와 사할린주 박물관협회의 협력과 주 문화·고문서부의 지원으로 열린다.

Молодежь КМНС собралась на конференции "Родная речь"

Проекты на языках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представили на Сахалине. Свои исследования докладчики от 11 до 27 лет презентовали на полях V региональной детско-юнош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Родная речь".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ялос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11 ноября. Впервые помимо участников из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 конференции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амчатского, Хабаровского, Забайкальского краев и Республики Саха (Якутия).

Всего на конференции прозвучало 19 докладов. Молодые люди выступали на нивхском, уильтинском, эвенкийском, корякском и других языках. В своих проектах они охватили разнообразную палитру тем.

Например, Арсений Закор из села Бельго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поведал историю своего рода. Сахалинцы Кристина Горбунова из Ноглик и Дмитрий Кельман из села Некрасовка Охинского района посвятили доклады рыбе — основному компоненту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хни нивхов. А Антонина Килик из города Елизово Камчатского края задалась вопросом, почему дети не хотят говорить на корякском языке.

Региональная детско-юнош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Родная речь" на языках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водится с 2018 года. Организатором выступает музей книги А. П. Чехова в партнерстве с ООО "Сахалинская Энергия" и ассоциацией музее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ообщает музей.

자선행사가 사할린 주민들의 소원을 이뤄준다

'소즈다켈리(창조자)' 선도 그룹이 지난주부터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정들로부터 제드 모로즈(추위 할아버지)에게 새해 소망을 담은 편지를 모으고 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이 편지들 중 하나를 가지고 가서 아이든, 어른이든 꿈을 이뤄줄 수 있다. 이 기획은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과 성인과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추위 할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에 적은 소원의 성취로 새해의 기적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97통의 편지가 접수되었다.

"아동과 성인의 소원은 다른데 단순한 사탕 선물에서부터 숨인형, 눈시울을 적시는 깊은 감동의 소원도 있다."고 행사 주최자인 엘레나가 전했다.

선물 구매 참가에는 엘레나 및 다른 주최자들의 친구나 동료, 이웃, 고객, 지인들이 참여한다. 97개의 소원 중 63개 소원의 선물은 관심을 가진 사할린 주민들이 구매할 예정이다. 앞서 새해 선물의 남은 부분 구매 외에도 새해 율카(성탄 트리) 행사도 조직되었다.

(8면에 계속)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전호의 계속)

제5조의 제목 중 "영주귀국 및 정착"을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할린동포"를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으로, "정착"을 "정착과 생활안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영주귀국 및 정착"을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반가족"을 "국내유족"으로, "제1항"을"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영주귀국 및 정착"을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5조"를 "제5조제1항"으로, "정착"을"정착과 생활안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및 제2항에따른 지원 여부"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여부"로 한다.

② 사할린동포의 국내유족으로서 제5조제2항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유족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로부터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은 국내유족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통하여 그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정착 및 생활안정-----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국내영주를 목적으로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3. "국내유족"이란 사할린에서사망한 사할린동포의 국내 거주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현행과같음) ② 국가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 및 국내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동반가족"이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그 배우자를 말한다.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동반가족 및 국내유족----- ----- ----- ----- ----- ----- 제4조의2(실태조사) 정부는 사할린동포과 그 동반가족 및 국내유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정착과 생활안정----- ----- 1. ~ 3. (현행과 같음) 4. -----영주귀국·정착 및생활안정----- ----- -----국내유족-----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
제3조(국가의 책무) ① (생 략) 〈신 설〉	제5조(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정착과 생활안정----- ----- 1. ~ 3. (현행과 같음) 4. -----영주귀국·정착 및생활안정----- ----- -----국내유족-----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
②·③ (생 략)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정착과 생활안정----- ----- 1. ~ 3. (현행과 같음) 4. -----영주귀국·정착 및생활안정----- ----- -----국내유족-----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
〈신 설〉	제4조의2(실태조사) 정부는 사할린동포과 그 동반가족 및 국내유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①정부는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및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정착과 생활안정----- ----- 1. ~ 3. (현행과 같음) 4. -----영주귀국·정착 및생활안정----- ----- -----국내유족-----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
1. ~ 3. (생 략) 4. 그 밖에 영주귀국 및 정착을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정착과 생활안정----- ----- 1. ~ 3. (현행과 같음) 4. -----영주귀국·정착 및생활안정----- ----- -----국내유족-----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
②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른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정착과 생활안정----- ----- 1. ~ 3. (현행과 같음) 4. -----영주귀국·정착 및생활안정----- ----- -----국내유족-----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

(다음호 계속)

지난 10월 1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사할린 동포 문제: 해결 방안'국제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아래에 최경옥 교수의 발표문을 게재한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 한인과 대한민국 국적과의 관계

최경옥 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은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등 역임

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4) 복수국적 협약 체결 필요성

한국에서도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있으며, 러시아에서도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가 협상을 재개하면 지금이라도 충분히 상호 간에 복수국적을 인정할 수 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국적법」 제 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개정 2016. 12. 20.> ②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5. 4.]

그러나 복수국적자라 할지라도, 국적선택의무가 있다. 이 조항은 주로 병역에 관련된 조항으로 다음과 같다.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 5. 4.>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 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 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2019. 12. 31.> 1.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8. 3. 14.][제목개정 2010. 5. 4.][헌법불합치, 2016헌마889, 2020. 9. 24. 국적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본문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2. 9. 30.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또한 러시아연방 헌법은 조건부로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있다.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국민은 연방법과 국제조약에 의거하여 외국정부의 국적(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다음호 계속)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 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4., 2017. 12. 19.>[전문개정 2008. 3. 14.]
--

일반귀화와는 달리 특별귀화는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이면서,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들에게는 특별귀화를 허용하는 것이다. 단 그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 Сеуле прошел фестиваль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Миллион алых роз"

В субботу 12 ноября в Сеуле прошел ежег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Миллион алых роз". Мероприятие, которое было проведено Ассоциацией русскоязычных в Корее при частичной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е ФА "Рос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и корей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помощи иностранцам "Глобал-центр", собрало значите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зрителей как стороны местных граждан, так 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оссии и стран СНГ. Значительную помощь оказали волонтеры сеульских университетов Танкунг и Сангмёнг.

В холле здания, в котором прошел фестиваль, были организованы тематические зоны, где можно было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разукрашивании флагов и матрешек, посмотреть на процесс изготовления мастерами кружевных изделий, попробовать российскую еду, а также приобрести сувениры. Гвоздем программы стал концерт, на котором были исполнены российские песни, стихи, музыкальные и танцевальные композиции.

Президент Ассоциации русскоязычных в Корее Татьяна Примакова отметила, что данный фестиваль проводится уже 12-й год подряд. Название "Миллион алых роз" выбрано не случайно.

"Миллион" - культурное разнообразие современной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й Кореи и Сеула, а "алые розы" - их красота. Наша российская культура - одна из этих прекрасных роз" - поясни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ассоциации.

Олег Кириянов (Сеул)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Ищем родственников дедушки Е Кю-Сек!

На сайте Ариран.ру существует рубрика «Ищу тебя». На протяжении многих лет люди ищут родственников, друзей и знакомых. Модератор сайта Дмитрий Шин обратился в нашу редакцию с просьбой помочь в поиске родственников бывшего сахалинца.

Здравствуйтесь! Меня зовут Сергей Анатольевич Е. Пишу в связи с тем, что хочу найти родственников моего деда. Дедушку звали Е Кю-Сек, он 1926 года рождения. Был переселен японцами на Сахалин, в г. Томари, а позже уехал в г. Артем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Известно, что дедушка вел переписку с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но никакой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информации нет. То есть они могут быть как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так и в Корее. Прошло уже много лет...



АНКЕТА № 48, 27.10.2022	
Е КЮ-СЕК (РОДСТВЕННИКИ)	
ДАТА РОЖДЕНИЯ	01.05.1926
МЕСТО РОЖДЕНИЯ	г. ХАНЧЕН, КОРЕЯ
РЕГИОН ПОИСКА	САХАЛИН,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ДАВНОСТЬ ПОИСКА	УМЕР В 1988 г.
КТО РАЗЫСКИВАЕТ	ВНУК Е СЕРГЕЙ АНАТОЛЬЕВИЧ
E-mail	esergey97@yandex.ru

Профессия курьера становится одной из самых востребованных

Сеул, 15 ноября – ИА РУСКОР

Число работников службы доставки в Южной Корее увеличилось до рекордных 450 000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этого года, поскольку спрос на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и другие поставки резко возрос на фоне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По данным Статистиче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Кореи, общее число занятых в стране составило 28,08 миллиона человек, что на 865 000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о найти стабильную работу на полный рабочий день становится все труднее.

На долю «белых воротничков» в частном секторе по-прежнему приходится наибольшая доля — 2,36 миллиона, за ними следуют продавцы (1,68 миллиона), фермеры (1,23 миллиона), уборщики (1,09 миллиона), повара (1,03 миллиона) и водители (0,99 миллиона).

Но число курьеров увеличилось на 5,1 процента по сравнению с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ой прошлого года и на 6,2 процент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ервой половиной.

С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ы 2019 года, до пандемии, оно выросло на целых 28,9 процента, поднявшись с 20-го места среди 153 рабочих мест, перечисленных в статистике, до 14-го, обогнав даже школьных учителей, которых насчитывалось 422 000.

Вчера, сегодня, завтра



Сеул, 11 ноября — ИА РУСКОР

Завершила работу Всемир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молодых корейских лидеров «Корея вчера, сегодня, завтра» (9th World Korean Young Leader's Conference).

Мероприятие началось с основной речи президента Всемирного фонда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за мир и процветание Ким Док Рёна и приветствия председателя Фонда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Ким Сонгона.

В рамках конференции Ким Док Рён вручил благодарность председателю корейского бизнес-клуба KBN Сергею Ину за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и вклад в организацию конференции.

В конференц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28 лидеров из разных стран — представители из России, Узбекистана, Киргизстана, Казахстана, Шри-Ланки, Австралии, Бразилии, Японии и США, среди которых участвовали 6 членов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ских Бизнес Клубов (ОКБК), получивших персональные приглашения от Сергея Ина и главного секретаря Всемирного фонда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за мир и процветание Ким Гым Хи.

Делегаты совершили поездку по Сеулу, Кояну, Ичхону, Вандо, Санчхону, Кёнджу и Чхонджу, где смогли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культурой и традициями своей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ы. Участники конференции встретились со спикером Национальной Ассамбле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им Джин Пё, посетили национальный музей Кореи, зал истории тюрьмы Содэмон, демилитаризованную зону Кореи, хранящую историю событий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и разделения на Юг и Север, побывали и даже прошли спецподготовку в самом элитном батальоне спецназ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д названием «Летающий тигр» (на снимке), посетили Hyundai motors studio, галерею инноваций LG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Состоялся показ картины режиссёра документалиста Джозефа Джуна "Chosen" на закрытом показе в Сеуле.

Заключительная сессия, церемония вручения сертификатов и прощальный ужин всемир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корейского молодежного лидерства состоялись в главном зале штаб-квартиры Bodyfriend в Догк-доне, Каннам-гу при поддержке вице-президента Джи Сон Гю.

В рамках конференции мы смогл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историей, культурой и двигателями будущего развития Кореи, улучшить свое понимание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ы, обменяться мнениями с корейскими лидерами из разных стран и заложить основу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роста.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сессии состоялся торжественный прием и концерт с участием южнокорейских оперных певцов.

Сергей Ин: «Хотелось бы, чтобы русскоязычные корейцы больше и чаще участвовали в таких конференциях. Дело в том, что когда ты участвуешь в таком мероприятии, то «ближе» и воочию начинаешь понимать и чувствовать Корею. Хотелось бы, чтобы такую программу предусмотрели и для пожилых людей постсовет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где уже значительно утрачены обычаи и культура, и для детей, чтобы они раньше начали ощущать, понимать и чувствовать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Лана Тянь, специальный корреспондент медиagrппы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Форум Молодёжи Евразии

3 ноября в рамках форума Молодёжи Евразии (유라시아 청년 미래 개척단) в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ов Узбекистана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50 студентов из Кореи с участниками Молодёжного центра "Shinsedae" и бизнес-клуба «Koryoin».

Основной целью встречи было укрепление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молодёжью наших стран, просвещение студентов об истоках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в Узбекистане и создание условий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роприятие включало экскурсию по Дворцу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посещение музея им. Хван Ман Гыма и дружеский обед в ресторане «Маннам», где гости отведали традиционные блюда корё-сарам и получили памятные подарки за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и.

Сайт Корё сарам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резиденты РК и США договорились укреплять совместную оборону

Президенты РК и США Юн Сок Ёль и Джо Байден выразили серьёзную озабоченность по поводу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ракетных провокаций, договорившись укреплять совместную оборону. В ходе 50-минутной встречи, состоявшейся 13 ноября в Пномпене, глава Белого дома подтвердил приверженность США своим обещаниям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безопасности РК за счёт средств расширенного сдерживания. В том случае, если Пхеньян применит ядерное оружие в любой форме, союзники ответят мобилизацией всех доступных средств. Юн Сок Ёль отметил, что Пхеньян ничего не добьётся с помощью ракет и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В ходе переговоров была затронута проблема дискримина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авто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на американском рынке в связи с принятием в США Акта об инфляции. Юн Сок Ёль заявил, что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проходят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консультации. Он напомнил, что ранее Джо Байден подтвердил готовность к открытым переговорам по данной проблеме, учитывая вклад Сеула в развитие американской экономики в сфере автомобилестроения и производства батарей.

Пианист Ли Хёк получил главный приз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онкурса Лонг и Тибо

22-летний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ианист Ли Хёк стал лауреат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онкурса имени Лонг и Тибо, завершившегося в Париже. Он разделил первую премию с японским пианистом Камеи Масая. Ли Хёк исполнил в финале конкурса, состоявшемся 13 ноября в парижском театре «Шатле», Концерт для фортепиано с оркестром № 2 Сергея Прокофьева. Он стал вторым южнокорейским пианистом, удостоенным награды на этом престижном конкурсе классической музыки. В 2001 году лауреатом конкурса стал Им Дон Хёк. Денежный приз за первое место составляет 35 тысяч евро. Ещё один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ианист Но Хи Сон занял пятое место. Ли Хёк родился в Сеуле в 2000 году, начал учиться игре на фортепиано и скрипке в трёхлетнем возрасте. В 2016 году Ли Хёк поступил в Московскую консерваторию Чайковского, с февраля нынешнего года находится в академическом отпуске.

Корейский танец в масках «тхальчхум» - кандидат в Список ЮНЕСКО

Оценочный орган Меж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го комитета ЮНЕСКО по охране нематериаль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рекомендовал внести традиционный танец в масках «тхальчхум» в Список нематериаль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Информация об этом опубликована на сайте ЮНЕСКО. Рекомендации оценочного органа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гда исполняются. Окончательное решение будет принято в ходе 17-го заседания Меж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го комитета ЮНЕСКО, которое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с 28 ноября по 3 декабря в Марокко. Танец в масках «тхальчхум» может стать 22-м по счёту южнокорейским объектом в Списке нематериаль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ЮНЕСКО. Он сочетает в себе танец и пояснение, в сатирической форме отражая соци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Корей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по охране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учло в заявке на включение «тхальчхум» в список ЮНЕСКО его влияние на современное искусство Кореи.

В РК началось применение бивалентной вакцины против COVID-19

14 ноября в РК началось применение бивалентной вакцины производства Pfizer против COVID-19, адаптированной к подвариантам Омикрон BA.4 и BA.5. Применение вакцин Moderna и Pfizer для подварианта BA.1 началось с прошлой недели. Все люди старше 18 лет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повторные прививки, если они были вакцинированы, либо инфицированы вирусом не менее 120 дней назад. Поскольку ожидается начало нового витка пандеми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ргано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екомендуют повторные прививки тем, кто подвержен хроническим заболеваниям, включая пожилых людей, людей с сопутствующ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и тех, кто находится в учреждениях для престарелых.

В РК готовится руководство по финансовой жизни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Комитет финансового контроля РК готовит новое руководство по финансовой жизни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полностью переработав содержание предыдущего издания. Впервые та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было издано семь лет назад на восьми языках - вьетнамском, китайском, тайском, английском, филиппинском, камбоджийском, русском и индонезийском. Новое издание отражает изменения в финансовой системе страны и статистические данные. Инструкция содержит такие разделы как услуги банков, финансовые предложения, обмен валют, денежные переводы, борьба с финансовым мошенничеством. Добавлена информация о страховании, оформлении банковских карт, онлайн-сервисах банков, денежных переводах за рубеж и т.д.

(RKI)

О чем рассказали обломки: южнокорейцы нашли на ракете из КНДР русские буквы

Власти Южной Кореи показали журналистам свои находки, весьма любопытные и неожиданные, хотя и оказавшиеся совсем не тем, на что надеялся Сеул.

Южная Корея смогла достать с морского дна обломки ракеты, которую КНДР запустила 2 ноября в сторону южнокорейской территории, спровоцировав воздушную тревогу у южан. К некоторому удивлению мест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обломки оказались с надписями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а сама ракета — советская С-200. Как считают в Сеуле, КНДР, скорее всего, давно закупила в СССР эти комплексы и вот теперь решила использовать раритет. Правда, по поводу причин такого поведения Пхеньяна у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единства нет, выдвинуто несколько версий.

Напомним, что 2 ноября оказалось крайне «жарким» для геополит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 течение дня КНДР запустила около трех десятков ракет, а также произвела более 100 артиллерийских залпов. Одна из ракет перелетела через межкорейскую морскую границу в Восточном (Японском) море, заставив власт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объявить на острове Уллындо воздушную тревогу, изрядно перепугав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и туристов. Ракета в итоге упала в море в исключитель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оне Южной Кореи, в 57 км от города Сокчхо, а Сеул в ответ запустил 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воды три свои ракеты плюс заявил Пхеньяну протест.

Кроме того, в район места паден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ракеты был снаряжен военный корабль с группой водолазов и экспертов, которые занялись поисками обломков. Предполагалось, что находка может что-то прояснить в отношении уровня развит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ракетных технологий. Уже 6 ноября южане смогли найти место падения и поднять с глубины 1700 м несколько достаточно крупных обломков.

В среду, 9 ноября, власти РК показали журналистам свои находки, весьма любопытные и неожиданные, хотя и оказавшиеся совсем не тем, на что надеялся Сеул. Главным «хитом», который потом стали обсуждать на все лады, стал поднятый с морского дна кусок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ракеты три метра длиной, на нем были четыре крупных рулевых пера и что-то типа сопла.

На ракете отчетливо видны надписи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для ТЗМ и автопоезда» (ТЗМ — транспортно-заряжающая машина. — NEWS.ru), «серийный № <...>, порядковый № 25, партия № 51» . Южнокорейские эксперты добавили, что на корпусе хватает и других надписей, но все они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и нет ни одной корейской буквы, что, мягко говоря, не очень обычно для прилетевшей из КНДР системы.

Для экспертов Института обор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РК узнать модель ракеты особой проблемы не составило. Это снаряд от разработанных и принятых еще в 1960-х годах на вооружение советских зенитно-ракетных комплексов С-200 в западной классификации SA-5.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ранее достаточно активно закупала оружие в СССР», — напомнил сотрудник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Минобороны. Некоторые СМИ, ссылаясь на данные американцев, сообщили, что конкретно эту систему КНДР ввезла из СССР в 1987 году и вот теперь решила использовать. Вместе с тем сами южнокорейцы воздержались от заключений по поводу того, что это —

обломки именно произведенной в СССР ракеты либо что-то иное, хотя надписи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говорят в пользу «советского следа».

Поводом же для разочарования южан стал тот факт, что эти обломки, на поиски которых были затрачены большие усилия и ради которых пришлось опуститься на глубину 1,7 км, оказались бесполезными с точки зрения оценки уровня развития ракетных технологий КНДР.

Эти системы уже давно считаются устаревшими, эта ракета прекрасно известна во всем мире, а потому на основании нее ничего нельзя сказать о новых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системах,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ситуацию военный эксперт на условиях анонимности.

Но большую полемику вызвали два других вопроса: во-первых, почему КНДР для запуска в сторону Юга использовала ракету класса «земля — воздух», то есть которая предназначена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для поражения самолетов и ракет, а не класса «земля — земля»? Во-вторых, почему была задействована столь старая ракета?

На первый вопрос ответ нашли быстро. Дело в том, что комплексы С-200, как и С-300, могут быть использованы и для поражения наземных целей, правда, по словам южнокорейских экспертов, в таких случаях у С-200 сильно хромает точность — отклонение от цели может составлять до километра.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если не ставилась задача что-то конкретно сбивать или разрушать, то для пуска в волны моря вполне подошла и С-200 в режиме «земля — земля».

Второй же вопрос оказался куда более дискуссионным.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оенные придерживаются точки зрения, что КНДР в последние недели произвела необычно много ракетных запусков, чем истощила свои арсеналы, а потому теперь вынуждена доставать все, что есть на складах, включая комплексы С-200. Мол, на американо-южнокорейские учения надо было ответить чем-то, вот и взяли то, «что оставалось», — хоть и старое, но ракета.

Правда, у этой версии хватает скептиков, которые отмечают, что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запущенных ракет вряд ли могли сильно опустошить запасы КНДР, так как ракеты малой дальности обычно производят сотнями или даже тысячами. Это, в конце концов, не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ые баллистические ракеты, которые куда больше, сложнее и дороже и которые наверняка считают максимум десятками. В Пхеньяне наверняка понимали, что отправленную в исключительную экономическую зону РК ракету южане в итоге найдут именно ради изучен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технологий, а потому и направили то, что «летает, может напугать, но с разведывательной точки зрения особой ценности не представляет». В конце концов так и произошло: пусть С-200 и устаревшая, но переполох в Южной Корее она наделала большой, заставив объявить на курортном острове воздушную тревогу, которой там не было еще с 1950-х годов. А какой-то це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для южнокорейской разведки обломки не дали.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эксперты с Юга придерживаются версий, которые им больше нравятся, исходя из личных предпочтений — либо о том, что «у КНДР ракеты почти закончились», либо что «специально такой раритет запустили, чтобы нас запутать».

Олег Кирьянов
(NEWS.RU)

Государство готово признать нетрадиционные семьи законными

Сеул, 7 ноября – ИА РУСКОР

Пары за пределами законных границ по-прежнему сталкиваются с различными препятствиями в Южной Корее, показали данные.

Согласно отчету институт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ых вопросов Кореи, 28,3 процента партнеров, состоящих в нетрадиционной форме семьи, таких как партнеры по гражданскому праву, заявили, что столкнулись с недостатками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е.

В ходе исследования было опрошено 159 мужчин и 177 женщин в возрасте от 19 до 49 лет в 291 домохозяйстве из не состоящих в официальном браке пар, сталкивались ли они с какой-либо дискриминацией или неудобствами.

Из них 28,3 процента заявили, что столкнулись с препятствиями в доступе к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е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в то время как 21,2 процента заявили, что испытывают неудобства при получении ежедневных услуг.

Более того, 13,9 процента сказали, что они столкнулись с негативным взглядом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а 12,5 процента сказали, что им не разрешили быть опекуном своего партнера в больнице.

В отчете также показано, что большинство пар, состоящих в гражданском браке, считают себя супружескими парами. «Финансовые трудности, связанные с наличием собственного дома и свадебной церемонией» были причиной пропуска регистрации брака для 32,2 процента участников опроса, за которыми следуют «для укрепления доверия перед официальной регистрацией» и «не хотят быть ограниченными социальными нормами» для 28,7 и 20,7 процента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Почти 43 процента участников опроса заявили, что чувствуют необходимость регистрации брака из-за ограничений и дискриминации в отношении социальных пособий, в то время как 39,6 процента заявили, что рассматривали возможность регистрации брака для блага своих детей.

Между тем,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вопросам гендерного равенства и семьи Южной Кореи объявило о своем намерении пересмотреть положение, определяющее круг семьи, в апреле 2021 года, чтобы признать нетрадиционные семьи законными, но недавно изменило позицию. Поскольку критика усилилась, министерство заявило: «Цель состоит в том, чтобы воздержаться от ожесточенных дебатов по поводу пересмотра и оказать практическую поддержку гражданам без слепых зон».

Зимнюю одежду для мобилизованных островитян доставили на Сахалин

Региональный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й фонд «Будущее вместе» и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организовали закупку крупной партии обмундирования для бойцов, призванных в рамках частич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В комплект вошла верхняя одежда, способная выдержать крайне низкие температуры.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зимних костюмов направили несколько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переданных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бизнеса.

Доставка зимних курток и брюк на Сахалин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еженедельно. Одежду выбирали, исходя из требований военных – она способна выдержать до 8 часов затяжного дождя, фольгированная подкладка и инновационный утеплитель помогут сохранить тепло. Всего для бойцов приобрели несколько сотен зимних костюмов. На остров также доставили вязанные шапки цвета хаки.

– Правильное решение, такие костюмы нашим бойцам сейчас очень нужны. Зима наступает, будет холодно – нужно быть к этому готовым. Костюмы, теплые вещи, термобелье, перчатки – это все сейчас необходимо, – отметил ветеран войны в Афганистане, инструктор Николай Рак.

– Хочу выразить слова благодарности участникам фонда «Будущее вместе»,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бизнес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и, конечно же, правительств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армейского корпуса Восточного военного округа по достоинству оценили ваше внимание, полученная форма очень тёплая и удобная. Спасибо всем за оказываемую поддержку и доверие, – сказал временно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командира армейского корпуса ВВО полковник Дмитрий Рожков.

Напомним,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еоднократно посещал воинские части и полигоны на Сахалине. Аналогичную задачу он поставил и перед главами районов. По поручению главы региона к обустройству мест временного размещения мобилизованных сахалинцев были привлечены строительные компании. Опытные подрядчики провели необходимые работы за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Кроме того, на Успенском военном полигоне создали тренировочную базу для обучения мобилизованных управлению беспилотниками.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на острове запустят выпуск дроно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ержит на особом контроле вопросы обеспечения мобилизованных граждан всем необходимым. При активном участии сахалинского бизнеса закуплены экипировка и техническое оснащение для бойцов.

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ая пала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длагает всем неравнодушным жителям 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принять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формировании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го фонда «Будущее вместе». За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информацией можно обращаться по телефону: 8 (4242) 28-23-45, 23-00-05.

По реш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семьям сахалинцев, которые были призваны по Указу о частич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выплачивают единовременно по 300 тысяч рублей. Близких мобилизованных граждан по домам обошли волонтеры и собрали все просьбы. В индивидуальном порядке решаются вопросы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получения медицинских услуг, образования детей и другие проблемы, которые волнуют сахалинцев.

Организована горячая телефонная линия по вопросам поддержки семей мобилизованных граждан: 8-800-201-00-99 (доб. 1).

Сахалинские аграрии собрали больший урожай,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завершилась уборочная кампания – полностью завершена уборка картофеля и овощей открытого грунта.

Валовой сбор картофеля среди сельхозпредприятий и фермерских хозяйств,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оценке, составил 47 тысяч тонн. Это превысило объе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на более, чем 2 тысячи тонн. Лидерами стали совхоз «Тепличный», где собрали 430 центнеров с гектара, совхоз «Заречное» – 275 центнеров с гектара, «Авангард-Агро» – 273 центнера с гектара и совхо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 253 центнера с гектара. Не отстают и фермерские хозяйства. К примеру, хорошую урожайность показало КФХ «Русь» – 265 центнеров с гектара.

Овощей открытого грунта, по оценке, произведено порядка 23 тысяч тонн. Помимо традиционной борщевой группы (капуста, морковь, свекла), сельхозпредприятия и крестьянско-фермерские хозяйства выращивают лук, редис, брокколи, кольраби, цветную капусту, кабачки и тыкву. Средняя урожайность в этом году превысила прошлогоднюю и составила 488 центнеров с гектара. Лучшего показателя достиг совхоз «Тепличный» – 565 центнеров. Следом идут совхоз «Заречное» – 517 центнеров и совхо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 479 центнеров. Среди фермерских хозяйств лучшие результаты у КФХ Евтаев В.Г. – 522 центнера и КХ «Остров» – 478 центнеров.

– Заложенный на хранение объем – основа для стабильного снабжения жителей товарным картофелем и овощами, а также для формирования семенного фонда для посевной кампании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Во многом достижение таких показателей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благодаря большой подготовительной работе со стороны наших аграриев и активной поддержке со стороны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торгов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нна Павленко.

По инициативе главы региона в этом году был оперативно принят ряд необходимых решений для поддержки

островного агропрома. Аграрии получают субсидии на техническую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ую модернизацию сельхозпредприятий и крестьянских хозяйств, в том числе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автотехники, работающей на метане. Также на закупку высококачественного семенного материала, который хорошо показал себя на полях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Кроме того, были увеличены ставки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и доставку минеральных удобрений – с 30% до 50%, и возмещение затрат на проведение мелиорации – с 90% до 99%.

В целом в 2022 году на развитие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выделена беспрецедентная сумма господдержки в размере 3,9 млрд рублей.

Новый реанимобиль появился на станции скорой помощ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Транспорт оснащен передов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С его помощью медики смогут проводить эффективную реанимацию пациентов и, в том числе, спасать пострадавших в ДТП. Машина поставлена в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Безопасные качественные дороги».

До 300 вызовов в сутки – с таким объемом работы ежедневно сталкиваются сотрудники станции скор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Из общего числа обращений 10-15 связаны с вызовом реанимобиля, когда требуется помощь пациентам после ДТП, падения с высоты, с острыми сердечно-сосудистыми состояниями. Во всех этих случаях счет идет на минуты. В новом автомобиле имеется все необходимое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риступить к спасению жизни человека и начать стабилизацию его состояния до госпитализации в стационар.

– Часть оборудования, которая есть в этом автомобиле, относится к стандартной комплектации. Но часть эксклюзивная, например дефибриллятор с функцией мониторинга состояния пациента. Или великолепный аппарат ИВЛ, который позволяет работать стационарно и использовать при переноске пациента на носилках, – рассказал директор симуляционных и аккредит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Валерий Гнездилов.

Представитель главног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вуза проводит на Сахалине обучение сотрудников скорой помощи. Специалисты отрабатывают навыки сердечно-легочной реанимации, неотложной травматологии и кардиологии. Во время мастер-классов используется оборудование, которое установлено на реанимобилях. Обучение предусмотрено в рамках соглашения, заключенного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ТГМУ.

Модернизации службы в регионе способствовала сдача нового здания скорой помощ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 его введением появилось больше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сотрудников и оборудования, увеличения количества бригад и обеспечения оперативности при вызовах.

– Сегодня создан большой оперативный отдел, который принимает вызовы и по Южно-Сахалинску, и по области. За прошлый год присоединили для обслуживания новые территории – Мицулевку, Троицкое, Новотроицкое. Ежедневно на линию выходят 18-19 бригад, в сложный эпидпериод – до 20,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а главный врач станции скор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рина Салахутдинова.

Новый реанимационный автомобиль стал вторым, поступившим в регион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Безопасные качественные дороги». Помимо автотранспорта, предусмотрены поставки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токсиколо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 Это комплексная программа, которая позволяет говорить не только о состоянии дорог, их качестве и освещении, но и о состоянии участников дорожного движения. Мы все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том, чтобы поездки были безопасными. Люди, у которых выявляются подозрения на употребление запрещенных веществ, направляются в лабораторию в наркодиспансер. Современная аппаратура помогает выявить имеющиеся нарушения,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До конца года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ожидается поставка 12 автомобилей. А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на средства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приобретут еще 17. Машины будут распределяться по районам, в которых имеется наибольшая потребность в спецтранспорте – Углегорский, Корсаковский, Долинский и другие. Часть автомобилей будет закреплена за станцией скорой помощ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Еще один район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чал переходить на отдельный сбор мусора

Первые контейнеры для пластика, стекла и металла появились в Томаринском городском округе. Работы выполнены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Экология». В этом году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к отдельному сбору отходов присоединятся все районы острова.

К сегодняшнему дню в Томаринском городском округе установили 25 сетчатых контейнеров, планируется – более 170.

– Новые баки для отдельно собранных отходов удобны в эксплуатации. Пластиковая крышка позволяет без труда поднять ее, а конструкция на колесах облегчает процесс выгрузки в мусоровоз, имеющий заднюю за-

грузку. Именно такая машина приезжает для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отдельно собранных отходов, – отметил директор по экономике и финансам АО «Управление по обращению с отходами» Иван Морозов.

– Очень рад, что теперь у нас тоже появился отдельный сбор мусора. Сортировка отходов – это то, чем обязательно должны заниматься все цивилизованные люди. Это позволит сохранить наши острова для будущих поколений, – рассказал житель района Антон Сергеев.

В районах, где ранее были установлены специальные контейнеры, работа по сбору отдельно собранных отходов организована и налажена. Перевозку накопленных фракций производят отдельные мусоровозы. Выгрузка контейнеров происходит не реже одного раза в неделю.

– Мы получаем положительные отклики от жителей районов, которые подключились к отдельному сбору отходов. Для большинства островитян вопросы экологии остаются актуальными. Мы хотим жить на чистых островах, любоваться природой, не загрязненной человеком. А сортировка отходов поможет нам справиться с огромным количеством пластика, который не отправится на свалку, а будет переработан и получит вторую жизнь, – рас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Напомним, синие сетчатые контейнеры предназначены для пластиковых бутылок из-под напитков и бытовой химии, стеклянных банок и бутылок, а также алюминиевых и жестяных банок. Собранные сахалинцами отходы пройдут сортировку на полигонах региона и будут отправлены на переработку. Всего с начала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ывезли более 900 тонн вторичного сырья.

Работа по оснащению районов сетчатыми контейнерами в рамках экологического проекта продолжается. Необходимое количество емкостей закупили все районы острова. Установить специальные емкости осталось в Макарове, Углегорске и Александровске-Сахалинском. Эта работа завершится в ноябре. Таким образом, программа по сортировке отходов охватит весь остров.

Отметим, к управлению региональным оператором по обращению с отходам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ступило АО «Ситиматик». Группа компаний уже работает в восьми российских регионах и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лидеров рынка обращения с ТКО в стране.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деятельности группы: реализация концесс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выполнение функций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ператора, реализация вторичных материальных ресурсов (ВМР), а также развитие соб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переработки ВМР.

Островные врачи внедрили современный метод лечения варикозной болезни

Радиочастотная коагуляция вен позволяет более эффективно избавить пациента от болезненных ощущений и жизнеугрожающих состояний. Внедрение современных медицинских технологий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и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в рамках поручения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Радиочастотная коагуляция сосудов – одна из последних методик, которая применяется в мире. Она отличается щадящим воздействием и в то же время более эффективным результатом по сравнению с други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Теперь такие операции проводят в областной клинической больнице.

– Новая методика помогает врачам в лечении достаточн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ной патологии – варикозной болезни вен.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учете с этим заболеванием состоят 3 тысячи человек. Это оперативное вмешательство проводится под местной анестезией, не требуется время на длительную реабилитацию. Но, как и у любой методики, есть свои показания и противопоказания,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заведующий отделением сосудистой хирургии Вячеслав Пашин.

Выбор методики операции на венах врач осуществляет по результатам УЗИ-исследования. С помощью ультразвука специалист определяет анатомию вены, ее расположение, особенности. На основании полученных данных принимает решение о применении радиочастотной коагуляции, традиционных методов или комбинировании разных методик.

– Во время операции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радиочастотной коагуляции под УЗИ-контролем прокалывается вена и в нее вводится электрод. Он нагревает сосуд изнутри до 120 градусов. Вена запаивается и патологический рефлюкс ликвидируется, – уточнил ход операции врач отделения сосудистой хирургии Сергей Лабзенко.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Марина сегодня стала одной из пациенток, прооперированных по новой технологии. Своими впечатлениями она поделилась прямо во время операции.

– Ощущения абсолютно неболезненные. Лежу и очень комфортно себя чувствую. Во время обычной операции под наркозом потом тяжело отхожу. Разница большая. Надеюсь, завтра уйду домой, – рассказала женщина.

За время апробации новой технологии в областной больнице выполнено 60 операций методом радиочастотной коагуляции вен. Ежегодно планируется выполнять 150 таких вмешательств. Все они проводятся бесплатно по направлению врача из поликлиники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и дальнейшего приема у специалиста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й поликлиники областной клинической больницы.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2022 유라시아 세종학당 워크숍' 타슈켄트서 3일간 열려

유라시아 지역 9개국 25개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원 등 150여 명 참가
세종학당재단, 통번역 과정 교수법 등 실무형 교육 제공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이해영)은 지난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2022 유라시아 세종학당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수교 30주년을 맞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세계언어대학교에서 열린



세종학당재단이 주최하는 '2022 유라시아 세종학당 워크숍'이 지난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세계언어대학교에서 열렸다. (사진 세종학당재단)

이번 워크숍에는 러시아, 몽골,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유라시아 지역 9개국 25개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원 및 우즈베키스탄 내 한국어 교육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어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인 우즈베키스탄 언어진흥청과 공동으로 주관했다. 세종학당재단은 지난 4월 우즈베키스탄 언어진흥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우즈베키스탄 내 한국어 교육 확산을 위해 협력해 왔다.

워크숍은 '유라시아 지역 세종학당이 들려주는 세종학당 이야기'를 주제로 유라시아 지역 세종학당의 교원들이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세종학당재단이 주최하는 '2022 유라시아 세종학당 워크숍'이 지난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세계언어대학교에서 열렸다. 세종학당재단 창립 10주년 명사 특강으로 후사노프 아집존 노집조노비치 우즈베키스탄 언어진흥청 부청장이 '우즈베키스탄 외국어 보급 현황과 한국어 전망'을 주제로 강의했다. (사진 세종학당재단)

워크숍 첫째 날인 11월 8일에는 개회식에 이어 세종학당재단 창립 10주년 명사 특강, 세종학당 우수 사례 발표 등 올해 재단 창립 10주년과 연계한 교육 연수가 진행됐다.

개회식에서는 국장현 주우즈베키스탄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의 축사와 오비도프 산자르 오먼호자예비치 우즈베키스탄 언어진흥청장과 아지조프 울루크베크 보티로비치 우즈베키스탄 국립세계언어대학교 총장 등의 격려사가 있었다.

이후 세종학당재단 창립 10주년을 맞아 '우즈베키스탄 외국어 보급 현황과 한국어 전망'을 주제로 후사노프 아집존 노집조노비치 우즈베키스탄 언어진흥청 부청장의 9번째 명사 특강과 세종학당 10주년 우수 사례 발표 등이 이어졌다.

워크숍 둘째 날인 11월 9일에는 '상호문화주의 기반 한국문화로 배우는 한국어' 등 교수법과 관련된 교육들이 진행됐다. 특히 '세종학당 통번역 과정 워크숍'을 통해 유라시아 지역 세종학당의 신규 교육과정인 '통번역 과정'의 교수법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워크숍 마지막 날인 11월 10일에는 한지공예 및 한글 캘리그래피, 한식, 한복 등 한국문화 교수법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교구를 활용해 한지공예, 한글 멋글씨 등을 직접 체험해 보고 한복을 직접 입어보는 한편, 한국 영화 및 드라마 등 한류 열풍으로 전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진 케이뷰티를 체험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 참가한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세종학당의 한 교원은 "세종학당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통번역 과정' 수업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 고민이 많았다"며 "이번 워크숍에서 '통번역 과정' 수업에 실제로 사용하게 될 교재를 살펴보고, 전문적인 모의수업 시연 등을 통해 효과적인 교수법을 찾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이해영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유라시아 지역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육자들이 교수 역량을 강화하고, 서로의 교육 경험 및 정보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유라시아 지역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우즈베키스탄 언어진흥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학당재단은 지난 2013년부터 아시아, 유럽, 미국 등 지역별로 세종학당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세종학당의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으로 '세종학당 지역별 워크숍'을 매년 개최해 왔다. 지금까지 전 세계 10개 지역에서 개최됐으며, 75개국 총 4,684명의 세종학당 한국어 교원 및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재외동포신문)

청주 오송고등학교 샤프론&프론티어봉사단, 사할린 영주귀국 주민에 사랑의 김장 나눔

청주 오송고등학교(교장 조선진) 샤프론&프론티어봉사단(지도교사 홍정희)이 오송 거주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어르신들을 위해 김장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지난 12일(토) 20여 명의 봉사단원은 150 포기 분량의 김장재료를 준비해 김장을 담그고, 이를 사할린 영주 귀국민의 36 가정에 직접 전달했다.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으로 노역에 시달리다 해방 후 한국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사할린에 정착한 주민들은 2008년 이후부터 한국과 일본의 도움으로 한국에 정착했으며 2022년 현재 36가구가 오송에 거주하고 있다.

이규원 총 단장은 "코로나로 인해 잠시 멈췄던 봉사활동을 재개할 수 있어 더 뜻깊은 시간이었고 고물가 상황이라 넉넉하진 않지만 좋은 재료를 준비한 만큼 어르신들이 드시고 건강한 겨울을 나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학부모와 학생으로 구성된 충북 유일의 오송고 샤프론&프론티어 봉사단은 2013년 출범한 이래로 사할린 영주 귀국민 서포터즈 활동을 꾸준히 해 오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실천하며 건전한 봉사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한국공보뉴스)



제24회 KBS 한민족 체험수기' 시상식, 카자흐스탄 알마티서 열려

현지 고려인들과 카자흐스탄 거주 사할린향우회 회원 등 400여 명 참석해 성황

고려인 예술인들이 함께 꾸미는 축하공연 무대로 의미 더해

KBS라디오 한민족방송이 주최하는 '제24회 KBS 한민족 체험수기' 시상식이 지난 11월 10일 카자흐스탄 한국교육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KBS 한민족방송은 중국 동북 3성을 비롯해 CIS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과 사할린 동포들에게 한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우리말과 우리글을 보존하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매년 'KBS 한민족 체험수기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KBS 한민족 체험수기' 시상식이 CIS 지역에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한-카자흐스탄 수교 30주년을 맞아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렸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전체 수상자 20명 중 고려인이 6명을 차지할 정도로 큰 성과를 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이들 6명에 대한 시상과 함께, 내년이면 100주년을 맞는 고려일보의 산증인인 한글판 주필 남경자 씨에 대한 공로상 수여와, 한인과 고려인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고려문화원 김상욱 원장에 대한 감사패 전달이 있었다.

시상식에는 박내천 주말마티한국총영사, 김로만 카자흐스탄 전 하원의원, 신유리 고려인협회장, 신안드레이 알마티고려문화중앙회장, 최따짜이나 독립유공자후손회장, 김태환 알마티한국교육원장 등을 비롯해 현지 고려인들과 카자흐스탄인들, 카자흐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사할린향우회 회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신유리 고려인협회장은 "고려인 강제 이주 85주년, 한-카자흐스탄 수교 30주년, 고려극장 9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에 KBS가 고려인들을 위해 이런 의미 있는 행사를 열어 감사하다"며 "고국의 이런 관심이 고려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순영 KBS 사회공헌방송부장은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에서 우리 문화와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었다"며 "KBS에서는 앞으로도 고려인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유대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인 이소연과 작곡가 이호섭 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상식은 고려인 예술인들이 함께 무대를



KBS라디오 한민족방송이 주최하는 '제24회 KBS 한민족 체험수기' 시상식이 지난 11월 10일 카자흐스탄 한국교육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제24회 한민족 체험수기 고려인 수상자들 (사진 KBS 한민족방송)

꾸며 의미를 더했다. 현지 고려인들로 구성된 비단길 합창단의 '한 많은 대동강'을 시작으로 가수 강진과 홍시가 한국 가요를 불러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전 고려극장장이자 기타리스트인 김 겐나지와 카자흐스탄 공훈 가수 문공자 씨가 사할린과 카자흐스탄 노래를, 전 고려극장 가수인 김 세르게이가 한국 가요를 불렀다.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 고향합창단의 '고려아리랑' 합창에는 관객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 공연을 본 고려인 김 세르야나(26) 씨는 "한국 가수들이 와서 노래하는 걸 직접 보니 너무 좋았다. 그리고 할머니들이 한복을 입고 고려아리랑을 부르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말했고, 김옥자(64) 씨는 "고려인들이 상을 받는 걸 보니 흐뭇했다. KBS에서 고려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 감사하고, 특히 젊은 고려인들에게 상을 주니 좋았다"고 했다.

제24회 KBS 한민족 체험수기 시상식은 KBS 한민족방송(AM 972, 1170KHz)을 통해 오는 12월 24일에 방송될 예정이며, KBS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Kong(콩)을 통해 전 세계로 방송된다.KBS 한민족방송(韓民族放送)은 한국방송공사가 반공주의 선전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북방송이자 한국어 국제방송이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과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 러시아 연해주에 거주하는 한민족들이 주 청취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라디오 채널 중 표준FM으로 송출되지 않는 유일한 중파방송 전용 라디오 채널이다.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자선행사는 12월 25일까지 계속된다. 행사 참가 희망자들은 메신저나 다음 전화번호(8-914-095-88-66(알료나), 8-924-481-81-80(에브게니야), 8-914-757-81-46(다리아))로 주최 측에 문의할 수 있다.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ая акция исполняет желания сахалинцев

Инициативная группа «Создатели» запустила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сбор писем Деду Морозу с новогодними желаниями от семей, нуждающихся в помощи. Каждый желающий может взять одно из писем и исполнить мечту ребёнка или взрослого. Этот проект существует, чтобы дети и взрослые из малообеспеченных семей или ребята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смогли почувствовать и увидеть новогоднее чудо — исполнение желания из письма Деду Морозу.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уже собрано 97 писем.

«Желания деток и взрослых разные, от простых сладких подарков и мягких игрушек, есть берущие за душу, от которых наворачиваются слезы», — поделилась Елена, организатор акции.

Участие в покупке подарков принимают друзья, коллеги, соседи, клиенты, знакомые Елены и других организаторов. Уже 63 подарка из 97 будут куплены неравнодушными сахалинцами. Впереди, помимо покупки оставшейся части новогодних подарков, еще и организация мероприятия — праздничной елки.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ая акция будет длиться до 25 декабря. Желающие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могут связаться с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по номерам телефонов или с помощью мессенджеров: 8-914-095-88-66(Алена), 8-924-481-81-80(Евгения), 8-914-757-81-46(Дарья).

사할린에서 러시아 페인트볼의 날 기념

사할린 주민들을 위한 페인트볼 행사가 무료로 조성되었다. '남쪽 도전' 경기가 코르사코브 지역의 노위에 마을에서 열린 가운데 12개 팀들이 참가했다.

"선뜻 나서서 해보지 못하던 아이들이 마침내 이것을 해내고, 지금은 우리 병졸들을 보강해주어 기쁘다. 우리는 신입 소대에서 새로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대부분 좋은 반응을 얻었다. 경기에 기상 여건

이 어려움을 더했지만 외려 이런 것으로 더욱 흥미로워졌다. 모든 참가자들은 절도가 있었고, 스포츠적 예의를 잘 지켰다."고 '올드스컬즈(Oldskullz)' 페인트 클럽의 대표 김 유리가 말했다.

이번 경기 참가자들은 전문적인 페인트볼 게임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경쟁했다.

보통 경기에 참가자들에게는 약 200개의 색깔 페인트볼이 들어있는 마커(페인트볼 총기)를 지급하고, 계속 페인트볼을 제공한다. 전술 페인트볼에서는 총기에 페인트볼을 18개로 한정 지급하며, 참가자들은 실제 조건에서처럼 총을 재장전하여 사용해야 한다.

수상자들에게는 메달과 페인트 클럽에서 스포츠 강습의 증서를 수여했다.

이 행사는 '올드스컬즈' 페인트볼 클럽이 사할린주 스포츠 훈련센터의 지원으로 개최했다.

На Сахалине отметили день российского пейнтбола

Для островитян бесплатно организовали праздник пейнтбола. Турнир "Южный вызов" прошел в селе Новое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и собрал 12 команд,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Рад, что ребята, которые не решались попробовать, наконец это сделали и теперь пополняют наши ряды. В дивизионе новичков мы увидели много новых лиц и получили массу хороших отзывов. Сложности игре добавили погодные условия, но от этого было только интереснее. Все участники были корректными и соблюдали спортивную этику, — рас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пейнтбольного клуба Oldskullz Юрий Ким.

В этот раз участники оспаривали победу в тактическом пейнтболе. В обычной игре участники снаряжают маркером (оружием для пейнтбола), в котором около 200 шаров с краской, и они подаются непрерывно. А в тактическом пейнтболе — маркер с магазинной подачей, то есть количество шаров ограничено — 18 штук, и игроку надо перезаряжать оружие, как в реальных условиях.

Призерам вручили медали и подарочные сертификаты для занятий спортом в фитнес-клубе.

Мероприятие организовал пейнтбольный клуб Oldskullz при поддержке центра спортивной подготов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영주귀국하신 서진길 씨 2022년 11월 13일 부산에서 별세

장기간 사할린주 이종징용광부유가족 회장으로 활동하셨던 서진길 씨(1944년생)는 사할린 사회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셨으며, 그의 발기로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앞 사할린 한인 이종징용 광부 피해자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다.



사할린의 유일한 한글 민족지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서진길 회장님의 별세에 대한 비보를 부고하며, 비애에 잠긴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새고려신문사 사원 일동

장기간 사할린주한인이종징용광부유가족회 회장을 맡으신 서진길 씨가 2022년 11월 13일 중환 끝에 78세를 일기로 한국 부산에서 별세하셨음을 부고하고 비애에 젖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할린주한인협회
사할린주노인회
사할린주한인이산가족협회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Реклам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ная компания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3 г.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е полугодие — 606 руб. 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신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야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